

사회복지철학연구의 과제

송 정 부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서 론

철학은 근원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된다면 사회과학으로서 사회복지학을 연구할 때도 우리는 철학적 물음에서 시작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복지학은 사회과학의 한 분야이며 철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 철학이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는가」, 또는 「철학적 물음은 사회과학연구방법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혹은 「사회복지학과 사회과학철학은 어떻게 관련하며 형성되는가」 등의 의문이 생기며 이 의문에 대한 연구 주체자의 주체적 인식이 요구된다.

그러면 연구 주체자의 철학적 의문에 대한 '물음'을 사회복지학에 응용해 본다. 즉 우리가 평소 논문을 읽고 발표를 들을 때 이 논문과 저 발표는 「문제의식」이 없느냐니 혹은 있느냐니 하는데 여기에서 의문이 생긴다. 우선 문제란 무엇이며 의식이란 무엇인가. 인간에 있어 문제란 무엇을 의미하며 문제의식이란 무엇인가. 또 문제의식은 어떻게 형성하는가. 그리고 문제의식이 있고 업고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또한 기준설정은 어떻게 하는지. 더욱이 문제의식과 문제제기는 어떠한 관계이며 그 전개과정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또는 그것을 설명하는 도구는 무엇인가 등등이 항상 연구의 당면 문제로 대두된다.

더구나 연구자가 어떠한 사실에 의문을 품고 그 현상을 해석규명하려 할 때 어떻게 그 사회현상 내지 사회복지현상을 연구자의 연구대상으로 포착하고 수용하며 성립하느냐가 연구자들을 항상 고민하게 만든다.

연구자의 고민은 철학이나 과학에 대한 '물음'을 어디까지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지. 그 끝은 어디이며 무엇인가. 연구자가 자연과 사회현상을 발견하고 그 법칙을 설명하려 할 때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중 어느 부문으로부터 접근하여 추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가. 또 인간은 사회적 사실을 어디까지 어느 만큼 심리적으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인간은 무엇에 의해 존재하고 무엇에 의해 움직이나. 인간은 어떠한 것에 가치를 두고 인간은 무엇에 의해 죽고 사는가. 이러한 현실에서 인간의 생명·생활·생존·실존과 복지란 결국 무엇인가. 결국엔 죽는데 행복하게 오래 살면 그것이 복지인가. 인간의 절망을 무엇으로 극복하며 초월할 수 있느냐.

이러한 모든 사항이 사회과학철학연구의 기초적 문제이며 사회복지철학 탐구에 있어서도 근본적 과제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철학을 연구하는데 있어서의 연구과제를 사전에 고찰하여 본질에 접근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자면 사회복지철학을 어

떻게 연구해야 하느냐가 당면 문제이다.

II. 사회복지철학연구의 의의

사회복지란 무엇이며 왜 사회복지를 연구하고 실천할 때 사회복지철학이 필요 한가.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예를 들어 다른 학문영역에서는 정치 철학, 법철학, 사회철학, 역사철학, 교육철학 등이 있으나 사회복지학에서는 복지철 학 내지 사회복지철학은 그리 활발히 연구되지 않아 그 존재가 희미하다.

사실은 존재가 희미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에 대한 본체와 본질은 확실히 있 으나 우리가 그 형체를 발견하지 못하고 혹은 보고는 있으나 본질을 의식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싶다. 더욱이 사회복지철학에 대한 연구가 미진했기 때 문에 그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회복지정책 및 기 술이 실시되고 있으며 우리는 평소 생활에서 무언가 생각하고 행동할 때 타인의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며 타인과 공생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생활정신에는 확실히 개인의 생존과 타인과의 공존·공생철학이 있다. 인간과 사회의 생명·생활·인권·평화 에 대한 생존의 존엄성이 곧 사회복지학에 있어 철학정신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생존의 세계관을 이론화하고 체계화한 학문을 사회복지철학이라고 말한다. 이 러한 인간에 대한 존재방식의 철학정신은 사회복지실천에 행동방향과 가치판단의 기준과 지침이 되기 때문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철학적 정신은 첫째 愛知求道の 정신이다. 철학은 근원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고 끝내 그것에 대한 해답을 생산하려는 고뇌에 찬 노력이다. 둘째로 철학정신은 주 체성의 자각이요 주체적 결단이다. 셋째로 철학정신은 非常하고 非適時的인 것이 다¹⁾.

사회복지학도 철학정신으로 사회복지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학정 신」은 인간의 삶의 방법과 목적을 계속 찾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학의 정신 은 ①사회복지학은 개인이 어떻게 인간답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며 그 길을 찾 고 있다. 사회복지학은 인간으로서 개인인 나는 누구인가, 우주·세계 속의 사회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제기하고 끝까지 그 문제와 해답을 찾으며 해결하려고 노력 한다. ②사회복지학정신은 인간개인의 주체적 생존과 생활의 자기결정을 최우선으 로 한다. 인간은 생명과 생활의 근원을 알고 그 곳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주체적으 로 자각하고 자기 생존에 대해 주체적 판단을 내린다. 즉 자기 실존에 대한 본인 의 자기실현을 향상시킨다. ③사회복지학정신은 한시적인 안정·희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적으로 삶의 복지를 회구하고 있다. 인류의 희망과 생존은 역사 적·사회적 속성이지만 인간의 생존복지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혼이 복지를 희망 하기 때문에 초역사적이고 초월적이며 비적시적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학정신은 인간생존의 근원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며 복지를 구현하는 실천 노력이다.

1) 철학교재편찬회 편 『철학』 형설출판사 1987 pp.15-17

이러한 것에서 철학과 사회복지의 관계를 보면 철학과 복지는 인간의 생존과정상의 정신과 실천이다. 즉 철학은 정신이고 복지는 실천이다. 정신과 실천이 있으므로 비로소 인간들의 생존과 실존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회적·문화적 생존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목적과 행위에 있어 방향을 설정하는 철학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복지철학연구의 의의가 여기에 있다.

III. 사회복지철학의 기본문제

인간은 목적과 자유의지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 불안하다. 삶에 대한 불안, 늙음에 대한 불안, 병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불안 등이 있다. 즉 철학은 이러한 生老病死에 대한 불안한 현실과 절망 속에서 추구하는 진리이다. 이 진리는 인간의 삶에 대한 가치이며 자기위안이고 확신이다.

그래서 철학의 근본문제는 첫째로 삶의 진리를 추구하고 그것을 해석하는데 근본적인 관심을 갖는다. 삶의 본질은 무엇인가, 인간은 세계 혹은 우주 안에서 어떠한 위치를 가지는가, 사물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등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에 철학은 궁극적인 관심을 갖는다. 둘째로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고 또 죽어 가는 세계관 과연 무엇인가라는 세계관의 진리이다. 인간에 대해서 세계는 객체적인가, 세계가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과 원리는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 세계관이다. 철학의 입장에 의한 세계관을 철학적 세계관이라고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관념론과 유물론이다. 이 가운데 어느 편이 올바른가, 어느 편이 보다 많은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것일까, 철학적 세계관의 문제는 이러한 물음에 대답하려고 하는 것이다. 셋째로 철학의 근본문제는 진리와 인식의 문제이다. 철학은 전통적으로 진리탐구 및 진리인식의 학문이었다.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불변성을 요구하는데 실제로 영원불변한 진리는 존재하는가. 아니면 진리는 역사적 조건에 의해 규정되고 형성되므로 상대성을 벗어 날 수 없는가(역사주의)를 철학은 답하려 한다. 넷째로 철학의 근본문제는 가치와 실천의 진리이다. 인식의 문제는 세계인 객체와 인식주체, 주체와 주체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문제이지만 결국 인식주체인 인간 존재는 인식의 문제를 인간 현실의 실천문제로 받아들인다. 인간주체는 세계를 객체적으로 인식할 뿐 아니라 그것을 실천적으로 관계하게 된다.²⁾

인간의 생존복지와 사회의 평화복지 및 세계의 세계복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학은 첫째로 인간에 대한 삶의 진리를 추구하고 그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궁극적 관심을 갖는다. 사회복지의 본질론에 관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오늘날 고도의 산업·공업사회에서는 인간적 존재로서의 주체를 어떻게 보아야 하며 상실되고 불확실한 주체적 존재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는 절실한 사회복지적 근본문제이다. 무한대의 우주세계에 있어 현재의 인간 존재는 무엇인

2)상계서.P.33

가. 그 속에서의 결론적 복지란 무엇인가·사회복지란 무엇인가 또한 사회복지철학이란 무엇인가를 해석하고 해결해야 한다.

둘째로 인간이 사회·세계·우주에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또 죽어 가는 사회·세계·우주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사회복지세계관의 진리를 탐구한다.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의 과정상 인간이 주체성을 확립하게 하는 요인은 물질적인 것을 근본으로 하는가(유물론), 정신을 근본으로 하는가(관념론)를 묻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존재자로서 생과 사를 어떻게 초월할 것인가를 사유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복지란 무엇인가와 사회복지철학이란 무엇인가를 해석해야 한다. 즉 '세계 내적 존재'(in-der-Welt-Sein)로서 인간의 정체를 사회복지철학으로 밝혀야 한다.

셋째로 사회복지학은 진리탐구와 진리인식의 학문이다. 인간생존·인간실존의 진리탐구 및 인간의 생존·실존의 진리인식을 해명한다. 사회복지학의 진리란 무엇인가, 생존과 실존의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불변성을 요구하는데 실제로 영원불변한 생존·실존진리는 존재하는가, 아니면 생존·실존진리는 역사적 조건에 의해 규명되고 형성되므로 상대성을 벗어날 수 없는가를 사회복지철학은 답하려 한다. 확실히 모든 진리는 역사 속에서 역사에 의해 변화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과 사, 생존, 행복, 희망 등에 대한 열망 자체는 변화가 없다. 단순한 상대주의는 진리 그 자체에 대한 부정이다. 생존진리는 변화와 생성하는 과정에 있으면서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역사주의(혹은 상대주의)의 진리관이 올바른가, 초월주의·초역사주의(절대주의의)의 입장이 올바른가, 두 입장은 조화될 수 없는가의 문제를 사회복지철학이 해결하려고 한다.

생존·실존진리의 문제는 사회문제인식의 문제에 귀착되어 있다. 왜냐하면 진리는 인식되는 것이며 인식에 의해 타당성을 갖기 때문이다. 인식주체와 객체의 문제, 인식과 존재와의 관계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또 사회현상·사회문제인식에서 존재가 유래하는가, 아니면 존재자가 있는 뒤에야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이 가능한가라는 문제 등이 제기된다,

넷째로 사회복지철학의 근본문제는 사회복지가치와 사회복지실천의 진리이다. 사회현상인식의 문제는 사회적인 객체와 인식주체인 인간 존재는 인식의 문제를 인간 현실의 실천문제로 받아들인다. 인간주체는 사회현상과 사회문제를 객체적으로 인식할 뿐 아니라 그것을 실천적으로 관계하게 되며 실천적 원리가 나타난다. 사회복지학도 인간에 있어 삶의 진리를 추구하고 세계관·사회관, 진리·인식, 가치·실천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 이와 같이 철학과 사회복지학은 세계 속에서 사회적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인간의 가치와 실천의 진리를 탐구하는 지식체계라고 할 수 있다. 즉 실천학문이라는 것에 공통 영역이 있다. 철학과 사회복지학의 성격을 구분한다면 그 탐구 대상이 전체적이냐 부분적이냐 하는 점에 있다. 사회복지학은 특수학으로서 개별과학인데 반해 철학은 지식과 존재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

학(scientia universalis)이다.

철학은 존재자로서의 존재자 일반 원리의 학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했다. 이 정의를 사회복지에 응용하면 사회복지학은 생존자로서 생존자 일반 원리의 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생존자의 생존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 사회복지학이다. 다시 말하면 생존하는 것은 실존하는 것이며 실존은 생존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철학은 생존자의 실존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사회복지철학은 인간의 의미 있는 생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그 실존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한다.

보통 방법이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길을 의미하고 있다면 철학에 있어 그 방법은 ①경험적 사례를 검증하여 보편적 원리로 도입하는 귀납법, ②보편적 원리에서 개별적 사례를 도출하는 연역법이 있다. 전자는 특수에서 보편으로의 도입이고 후자는 보편에서 특수으로의 도출이다. ③유추법은 유사점을 기초로 하여 하나의 특수 사례로 논하는 방법이다.³⁾ 사회복지학에 있어서도 귀납법, 연역법, 유추법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정책·역사·이론에서의 정책론, 기술론적 연구와 실천 내지 비교복지론이 그것이다. 사회복지학연구에서는 사회현상, 사회구조, 사회문제, 사회복지에 대해 귀납법과 연역법을 순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과학방법론에 있어 이론과 실천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①실천에서 출발하여 이론으로 가는 입장, ②이론에서 출발하여 실천으로 향하는 입장, ③이론과 실천의 動的 상호규정에서 출발하려는 입장이 있다. 어느 것이나 세계관, 인생관의 문제와 깊이 결부되어 있다. 어떠한 세계관·인생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론과 실천에 대한 견해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①개인의 도덕적 실천만을 문제삼는 경우 ②사회적 윤리의 실천을 위주로 하는 경우 ③사회변혁을 위한 행동을 위주로 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론과 실천의 관계에 대한 어떠한 견해가 올바른가라는 문제는 가치론에 있어 근본적인 물음이 된다.⁴⁾

사회복지학방법론은 이론과 실천의 역동적 상호규정에서 출발하며 사회복지학의 대상이 인간임에 따라 특히 실천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다. 더욱이 개인과 사회의 사회적응과 사회변혁을 사회복지실천방법의 목표와 가치로 하고 있다. 또한 사회의 정치·경제·문화에 정책·실천방법으로 관련을 하고 있다. 즉 개인의 문제와 사회문제를 판단하고 행동하는 기준으로서 가치와 실천이 선택된다.

그러면 도대체 사회복지철학은 왜 필요한가. 그 필요성은 ①사회의 평화, 개인의 인권, 인간생활의 안정, 인간생명의 존엄, 생존의 희망, ②인간존중 ③가치관의 다양화·욕망의 다양성 ④사회복지적 인간관의 확립 ⑤소시얼워커의 행동지침, 가치지향 ⑥사회복지실천의 원동력, 목적·사회적 승인 등의 요인에 있다.⁵⁾ 이 요인들에 의해

3) 대한철학회 편 『철학개론』 합동교재공사 1991 p.73

4) 철학교재편찬회 전개서 p.35

인식주체인 우리들은 철학을 갖게 되어 그 철학적 사고에 따라 사회복지를 실천한다. 인식의 문제는 사회적 객체와 인식주체, 주체와 주체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문제이지만 결국 인식주체인 인간존재는 인식의 문제를 인간현실의 실천문제로 받아들인다. 인간주체는 사회를 객체적으로 인식할 뿐 아니라 그것을 실천적으로 관계하게 된다. 그 실천적 원리에서 사회복지철학이 필요하게 된다.

결국 사회복지철학의 근본문제는 개인차원이든 사회차원이든 간에 궁극적으로는 결국 인간이 사회에서 타인과 어떻게 살다 죽도록 하느냐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하면 국민 개인들이 자기만족을 느끼며 안정된 공동체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가 평화를 유지하고 인권을 보장해주는 사회정신이 사회복지철학이며 이러한 생존의 정신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사회복지철학에 있어 실존적 근본문제이다. 이 근본문제의 해결은 새로운 가치에 대한 도전이다.

IV. 사회복지철학의 개념규정

사회복지철학과 유사한 다른 개념으로서 사회복지가치, 복지의 마음, 사회복지사상, 사회복지의 인간관, 사회복지윤리, 사회복지이념 등을 거론하고 있으나 그 의미와 실체는 무엇이고 사회복지철학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 본질을 규명하고 실천하는 과학적 방법은 무엇인가.

논리학에서의 개념이란 용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다. 뜻(meaning)이란 의미를 나타낸다. 여기서 연구방법으로서 사회복지철학의 개념을 규정하려 할 때 연구자는 어떠한 조작적 성질·형태에서 접근하느냐에 달려 있다. 가령 사회복지로부터 철학을 분석·설명해야 할지 아니면 철학에서 사회복지를 관련시키면서 사회복지철학을 개념화시키느냐 이다. 즉 철학에서 복지를 볼 것이냐 아니면 복지에서 철학을 볼 것이냐 이다. 다시 말하면 철학적 복지이냐 아니면 복지적 철학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그 규정과 성격이 다르다. 예를 들어 철학적 측면에서 보면 전자는 원리를 강조하고 후자는 실천을 중요시할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자가 관심을 갖는 영역에 따라 개념은 조작적으로 달리 규정지어 질 것이다.

사회복지철학의 유사용어로서 ①복지윤리는 전문 소시얼워커의 자세, 클라이언트에 대한 태도, ②윤리강령, 복지가치는 사회복지의 가치관, 인간관, 인간이해·인간존중, ③복지사상은 국민에 대한 신념의 체계, 노동·분배·자유·평등·보장 등을 말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철학의 개념은 사회+복지+철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 가지 변수 중 어느 변인으로 개념을 규정하는 것이 논리에 맞는지가 문제이다. 여기서의 중심개념은 복지이므로 「복지」를 중심으로 사회와 철학의 개념을 관련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철학은 결국 인간이 한계상황에서 자기의 생존을 실현해 가는 과정상의 신념이다. 즉 인간이 사회생존상의 자기 실존을 위해 활동하는 신념이 철학이

5) 秋山智久 「社會福祉哲學試論」 『社會福祉研究』 第30號 鐵道弘濟會 1982 p.16

다. 사회복지철학을 음미해보면 사회복지철학은 사회철학(social philosophy)과 복지철학(philosophy of welfare)의 합성어이다.

①사회철학---사회인식의 관점, 국가사회관, 인간의 행동기준, 사회과학의 철학적 기반

②복지철학---인간이란 무엇인가, 복지란 무엇인가, 인간의 공생·공존, 사회적 감정(우정·애정·박애)과 자기보전의 감정(자기역할·존재)의 조화의 감정

이렇게 보아 필자는 '사회복지철학은 평화·인권·안정·희망을 목표로 하는 인간의 사회적 공존·공생정신이며 생존과 실존의 신념체계'라고 개념을 규정한다.

V. 사회복지적 철학관의 확립

사회복지적 철학관의 확립은 인간관의 확립에 있다. 사회복지가 누구의 사회복지인가하면 「인간」의 사회복지이고 철학이 누구의 철학이나 하면 「인간」의 철학이며 사회복지철학 역시 「인간」을 위한 인간에 대한 인간에 의한 복지이며 철학이기 때문에 인간이 주체가 된 상황에서 사회복지철학관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인간의 생명, 생활, 생존, 실존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사회복지철학관은 인간의 생명철학, 생활철학, 생존철학, 실존철학에 의해 구성된다.

사람은 생각하며 행동하는 존재자로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니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첫째로 우리 인간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있다고 하는 그 <있다>는 의미는 무엇이며 무엇이 어떻게 있는가. 둘째로 우리가 어떤 것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또 과연 무엇을 얼마만큼 알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았다고 할 때 그 앎이란 과연 확실한 것인가. 셋째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 무엇을 해야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즉 존재의 탐구이고 인식의 자기반성이며 인생의 문제 내지 가치의 문제이다.⁶⁾

이와 같이 인간의 존재에 대한 문제는 곧 삶의 과정이고 넓은 의미로 보면 철학은 즉 인간학이다. 따라서 실존주의적 사회복지가 인간존재의 의미와 생활의 의미를 묻는 것에 본질이 있다고 한다면 사회복지학의 연구방법은 생명·생활과 존재와의 관련된 현상을 객체적·주체적으로 탐구하는 일이다. 인간의 사회현상 내지 사회복지현상도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생명현상과 생활현상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문화적 전개이며 생존이 기초에 있다. 사회현상도 사회복지현상도 생존과 실존의 운동·변화·발전을 꾀하고 있다.

하이데카에 의하면 실존이란 현존재(Dasein)라고 하는 인간고유의 존재의 방법이며 이것은 야스파스에 있어서는 본래적으로 자기 자신이 되었을 때의 인간존재를 의미한다. 즉 나는 당신에 있어 실존하며 당신은 나에게 있어 실존한다는 인간 생존에 있어 본질 공존의 일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물

6) 대한철학회 『전계서』 p.85.

음에 대한 답을 구할 때 인지된 대상을 분석 연구하는 것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자기와 자기의 상황을 자각할 수 있는 주관적 상태에 대해 규명한다. 인간 존재에 있어서 부정적 측면을 통감하게 인식하는 정서적 체험 예를 들면 고통·공포·절망·좌절 등에 대한 부정적 측면에서의 정서적 체험이다. 고통과 불안의 체험은 그에게 있어 기초적인 체험이며 이 체험 속에서 그는 자기의 존재를 의식한다. 공감적 이해, 더불어 있는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학에 있어 인간관의 확립은 ①기초·기조·원점에 있는 인간 존중과 인간존재의 유의미감, ②칸트는 모든 사물은 가치를 가지고 있으나 한 인간만은 존엄을 가지고 있다, ③인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존재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존재의 의미 부여, ④소시얼워커에 있어서는 자기실현이 사회사업의 실천철학에 기초를 이루고 있다, ⑤사회복지적 인간관의 실천은 인간존재의 올바른 이해가 철학적 행동이다, ⑥한계상황을 경험하는 것과 실존하는 것과는 같다, ⑦생명을 보존하는 존재감과 노동력상실·감퇴를 극복하는 의지가 인간의 실존을 생각하게 한다. ⑧자유·평등·박애 등의 주체적 가치실현을 인간이 주도한다 등등이 사회복지철학관을 확립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VI. 결 론

사회복지철학연구의 과제는 사회복지철학을 연구하는 과학적 방법론의 모색에 있다. 즉 과학철학(Philosophy of science)으로서의 사회복지철학을 어떻게 접근하여 연구하는 것이 적합한가를 물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이란 무엇이고 사회, 세계, 자연은 무엇인가 또 인생, 문제, 희망, 복지란 무엇이며 삶과 죽음에 있어서의 사회복지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밝혀 내야 한다..

인생에 있어 생존과정상의 복지란 무엇이며 사회는 인간의 복지를 무엇으로 충족시키겠는가. 사회는 인간들을 어떠한 것에 가치 있다고 느끼며 살다가 불안하지 않고 행복하게 죽도록 만들어 줄 것인가. 인간의 생과 死의 삶을 연구하는 것이 사회복지학이며 인간이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생존·실존하도록 운동하는 정신이 사회복지철학이다.

인간은 죽음이라는 어쩔 수 없는 인생에 한계상황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궁극적으로는 결국 살기 위해서, 그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가치 있게 실존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 생활도 결국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먹고사는 것이라고 본다.

사회복지철학연구의 의의는 인간존엄성을 가지고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것에 있다. 사회복지철학정신을 불안한 인간들에게 존재의미를 갖게 하고 실존가치를 인식하게 하여 문화적 생활을 하게 한다. 사회복지철학은 생존자로서 생존자 일반원리의 철학이다.

사회복지사상은 사회적 관점에서 복지를 분석하는 것이고 사회복지철학은 인간

적 측면에서 복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복지철학은 평화·인권·안정·희망을 목표로 하는 인간의 사회적 공존·공생정신이며 생존과 실존의 신념체계라고 개념을 규정한다.

사회복지철학관은 인간관의 확립에 있다. 즉 인간이 존재·인식·가치의 근본이기 때문에 인간을 어떻게 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인간복지가 달라진다. 사회복지철학은 인간의 생존·실존철학이어야 한다.

사회복지철학연구의 과제는 인간과 사회와 복지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다. 또 사회복지철학도 복지에서 철학을 볼 것이냐 아니면 철학에서 복지를 볼 것이냐에 따라 그 성격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철학과 복지의 관계를 보면 철학은 정신이고 복지는 실천이기 때문에 경험과학·실천과학으로서 인간에 대한 과학성은 같다.

참 고 문 헌

- 김홍숙 교양사회과학 한국도서관협회 1980
- 김광웅 사회과학연구방법론 박영사 1980.
- 김경동 현대사회학의 쟁점 법문사 1983.
- 김성이·김상균 사회과학과 사회복지 나눔출판 1994
- 신섭중 공역 현대복지학총람 대학출판사 1995
- 대한철학회 철학개론 합동교재공사 1991
- 철학교재편찬회 철학 형설출판사 1987
- 한국복지연구회 사회과학과 사회복지학 한울 1993
- 三浦賜郎 社會福祉學概論 朝倉書店 1977
- 秋山智久 「社會福祉哲學試論」 鐵道弘濟會 『社會福祉研究』 第30號 1982
- 眞田是 福祉労働者のための社會科學入門 法律文化社 1987
- S.C.Kohs. The Roots of Social Work 1966 小島蓉子·岡田勝太郎 『ソーシャルワーク의源』 誠信書房 1989
- N.Tumms and D.Watson. Philosophy In Social Work 1978. 關家新助·高橋進·水谷利美 『社會福祉の哲學』 雄山閣 1988